

“우리마을 집단이주 시켜주오”

광양~목포 고속도로 공사로 균열·소음 피해 대책 촉구

순천 수덕마을 주민들 “도로공사 “공사 문제없다”

순천시 별량면 수덕마을 주민들이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로공사와 시공사 측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순천시 별량면 수덕마을 주민 100여 명은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11구공(순천시 별량면 두고리~안풍동)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분진, 밤파과음 및 증기소음, 진동 등으로 가옥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현장이 집에서 적개는 불과 2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근접한 곳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수십 차례의 밤파공사가 잇따라 집안 전체가 흔들리며 건물 곳곳에 틈이 생기고 지붕이 내려앉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민이 참여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마을 전체를 집단 이주시킬 것”을 요구했다.

마음이 아파 조영남(54)씨는 “오래된 가옥들이 많아 약한 충격에도 쉽게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발파로 인해 문짝이 뒤틀리고 외부 벽, 타일 등이 금이 가고 심지어 식탁 위에 놓인 컵이 바닥으로 떨어진 적도 있어 지

진이 일어난 듯 깜짝 놀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조씨는 “현재 마을 대다수 가옥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하루에 3번씩 밤파한 적도 있는데 사전에 주민들에게 한마디 공지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은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며 “도로공사와 시공사 측이 폐심하고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전신마비 증세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조 모(65)씨는 “경운기 사고로 4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 요양 차고형에 있는데 순간적인 굉음이 지속돼 심한 정신고통을 받고 있다”며 “재활치료로 10개의 알약을 복용하다 현재는 신경과 치료약 4개를 추가 복용하고 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생활의 불편함, 집의 안전성 문제, 재산가치 하락 등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발파에 의한 균열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법적 기준 한도 내에서 발파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현



순천시 별량면 주민 100여명이 지난 2일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

과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환경지감시설을 통해 소음 등을 줄여나가고 주민들과 협의를 위해 다각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집단이주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공사착공 전인 지난

2003년부터 마을전체 가구가 공사현장에서 100m 이내로 근접해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토해양부와 순천시 등에 첫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로공사와 시공사 측에서 무성의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주민들은 지난달 28일부터 현장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이야기로 풀어쓴 수산물 11종

남해수산연구 ‘바다에서 건진 꿈’ 발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소장 김이운)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건전한 어식문화(魚食文化)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수산물 해설서 ‘바다에서 건진 꿈과 희망’을 발간했다.

3일 남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이 책자는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수산물 11종을 ▲문화·생활 속 바다 이야기 ▲속담 속 바다이야기 ▲바다에서 건진 시(詩) ▲요리보고 맛보고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수산물 11종은 가지미, 갈치, 고등어, 멸치, 명태, 볶어, 조기, 흉어, 오징어, 굴, 미역 등이다.

뼈가 약하게 씹히는 거친 맛이

일품인 일명 ‘뼈째썰기(세고시)’는 뼈를 바르지 않고 자르는 방법을 뜻하는 일본말 ‘세고시’에서 비롯됐다. 전라도에서는 ‘뼈꼬시’로, 경상도에서는 ‘세꼬시’란 말로 통용된다는 등의 바다 이야기는 흥미롭다.

또한 ▲상제가 물어도 제상에 가자미 물어가는 것은 안다 ▲갈치가 갈치 꼬리를 문다 ▲멸치도 창자는 있다 등의 바다와 관련된 속담 풀이가 실려있다.

남해수산연구소는 관련기관과 노식업 단체, 신청 희망자들에게 책자(400부 한정)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문의(061-690-8990)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순천 인애원 노동자 5명 해고 부당”

중앙노동위원회 원직 복직·임금 지급 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설폐쇄로 해고된 사회복지법인 순천 인애원 해고노동자 5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3일 중노위와 인애원 노조에 따르면 이번 중노위 재심신청 사건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한 법인이 지난해 11월 13일 재심 신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중노위는 법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지방 노동위원회의 초심증문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법인은 지노위의 초심판정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 5명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인애원 측은 시설폐지 이후

최근 채용사이트에 법인 산하시설에

근무할 사무원과 생활지도사 등 2명에 대한 신규채용 공고를 게재하고 해고근로자 원직복귀 이행을 거스르고 있다.

해고노동자 안용호 씨는 “해를 넘기도록 인애원 ‘희망하우스’ 문을 굳게 닫고 해고자 복직 문제를 방지한 상태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해 법인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시설 정상화와 해고자 원직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인애원 법인 산하 희망하우스에 근무하던 노조원들이 법인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을 고발하자 법인은 희망하우스를 폐쇄하고 노조원 5명을 해고시키는 등 보복 성 조치를 취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지도사 자격증 취득]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연설 집중훈련)

■ 교육목표 : 대중 및 상대에게 김명과 김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직장인, 일반인, 주부, 기업체장 및 학생,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

■ 강의요일 및 시간

• 이전(매주 금요일) 19:00~21:00

■ 교육기간 : 2010년 3월 6일 ~ 6월 25일

* 교육요령: 실습위주교육(실습 70%, 이론 30%)

■ 교육과정 : 대화 및 연결기법, 발표력, 남양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요령 및 연설문 낭독 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형상 교육, 지방 선거 공식선거 출마 연설문 작성 및 지도

■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2010년 1월 25일(월) ~ 3월 3일(수)

• 등록시간: 월 ~ 금(오전 10시 ~ 오후 5시)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호실관 4층)

■ 등록방법(수강료) : 200,000원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 광주대 평생교육원)

■ 수료 후 특전 : 수료증 수여(총장명의), 스피치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종 선거연설원 피켓, 각 기업체, 학원단체스피치, 발표력 강사 및 사회진행자 추천

■ 담당교수 : 한상택

- 한국응답연설인증협회 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유세위원장

- 한국 정치 연설 교수

- 대통령직 전국응답대회 및 전국스피치 기능경시대회 대회위원장

- 기초방언위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후보 면접지도 및 면접문 작성(30년)

- 시민법인 한국응답연설협회 광주본부 회장

* 저서: 말하기 교본, 스피치 연설 리더십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670-2167, 2168

FAX: 062-670-2475 HP: 010-5692-9998

공장매매

■ 위치 :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

■ 대지 : 6,345㎡(1,920평)

■ 건물 : 1,685㎡(510평)

■ 전기 : 계약전력 200kW

■ 호이스트 : 3+3TON, 5TON(협의)

■ 현재 가동중

연락처 : 011-612-2823

이메일 : diid71@hanmail.net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27억

▷ 광주 ~ 부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 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헌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인공위성 이용 큰말뚱가리 생태정보 밝힌다

순천시 전파발신기 부착 이동경로 등 추적

순천시가 인공위성을 이용해 멀종위기종 2급 맹금류인 ‘큰말뚱가리’(사진)의 생태정보 연구에 나선다.

순천시는 “환경부 국립 생물자원관과 함께 5일 날개골절로 치료를 받아온 큰말뚱가리에 인공위성용 초소형 전파발신기를 부착, 방사해 이동경로와 서식지 등 생태정보 등을 연구한다”고 3일 밝혔다.

한편 발신기의 부착하는 큰말뚱가리는 지난해 12월 순천시 한 농경지에서 날개가 골절된 상태로 발견돼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 8개시·군 힘 모은다

여수유치위원회 10대 실행계획 마련

‘2012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유치위원회가 구체적인 유치전략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2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유치위원회는 3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유치를 위한 10대 실행계획(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유치위 참여단체 확대 및 지역별 설명회 개최 ▲전국 환경단체 및 NGO 대회와 자전거 국토대장정 개최 ▲유력 인사의 유치위

월과 8월 열기로 일정이 짧아 상대”라며 “나머지 실행계획도 구체적인 일정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위는 총회가 여수지역 단독 유치에 숙박 인프라 등 여러 제약 요건이 따를 것으로 판단, 전남과 경남 8개 시·군 지역에 유치지지 결의문 확보 등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유치를 선언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지난해 단체로 관련된 심포지엄 개최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로서 탄소포인트제 등 시민참여 활동 강화 등을 포함됐다.

유치위는 “자전거 국토대장정, 전국환경단체 및 NGO